

피해지 소식

2013년 4월



동북교구 주최 환영회

몸의 한 부분이 피로워하면 몸 전체가 함께 피롭다.

~타이완 기독교장로교회 의장 일본 방문~

3월 9일(토), 타이완 기독교장로교회(이하 PCT로 칭함) 의장 푸신 타리(布興 大立) 목사님께서 일본에 오셨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2주년을 맞이하여, 부흥활동에의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푸신 의장은 도착 당일 서동경교구 주최의 「차리티 콘서트」(아사가타니 교회)에서 인사한 후, 센다이에 가서서, 다음날 센다이 기타산반쵸 교회에서 예배 설교 후, 피해지역을 시찰하셨습니다. 3·11 당일은 오전 중에 아시아학원과 우즈노미야 교회시찰을 마치고, 오후에는 간토교구 주최의 기념집회(우즈노미야 우에마치 교회)에서 강연을 하시는 등, 강행군으로 4일의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PCT와 일본기독교단(이하 UCCJ)은, 3·11 이후 서로의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성과로는 이시바시 교단 의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3년을 맞이한 의장 성명」에 대한, PCT 의장·총간사장 명의의 「응답 성명」입니다. 성명을 통하여 UCCJ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정지와 폐로」를 요구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푸신 의장의 방일과 이시바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입니다. 이시바시 의장은 3월 22일(금)부터 1주일간에 걸쳐, 타이페이, 新竹, 彰化 등 각지에서 대지진 기념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CT의 모든 교회에서 개최된 대지진 모금활동입니다. 이미 타이완으로부터 해외헌금 총액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8천만엔의 헌금이 교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헌금활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제목으로 인용한 「몸의 한 부분이 피로워하면 몸 전체가 함께 피롭다」는, 새롭게 총간사장이 되신 林芳仲 목사님께서 작년 10월 교단총회에서 하신 인사말씀입니다. PCT는 말씀과 행동으로 UCCJ와의 연대의사를 표명해주셨습니다.

(구원대책본부 담당간사 이지마 마코토)



아시아학원 시찰을 마치고



센다이 기타산반쵸 교회 예배설교

국내모금 달성액

(2013,3,11 현재)

¥ 504,336,023

은행자동이체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SWIFT:SMBC JP JT)

Takadanobaba Branch(273)

2471703, for US dollars

3291280, for other currencies